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박은미	학번	
이메일	hesse5130@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국제정책대학원 / MPP	(국가) 미국
기 간	2018년 8월~ 2019년 7월	[귀국일: 2019년7월16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9년 8월 6일

신 청 인 : 박 은 미 (인)

1. 샌디에이고에서의 생활

샌디에이고는 1년 내내 기후가 건조하고 서늘하나 일조량이 많은 지역으로 한 여름에도 크게 덥지 않고 겨울에도 한파가 있지 않는 곳이다. 연간 강우량 또한 겨울을 빼고는 크지 않으며, 'June Gloom'이라 불리는 기간 빼고는 내내 화창한 날씨라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곳이다.

특히 UC San Diego(UCSD)가 위치한 La Jolla지역은 거주민들이 주로 학생들, 학교 관계자들, 경제력 있는 은퇴자들이라 치안이 좋고, 쇼핑물과 대형마트가 많아 생활이 편리한 곳이다. La Jolla지역이 생활 기반이 좋은 관계로 주거비 역시 샌디에이고의 여타지역보다 매우 비싼 편이다. 그러나 UCSD의 대학원 가족 기숙사에 입주하게 된다면 부동산 시세보다 반값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다. 방이 두개인 기숙사 아파트의 경우 월세가 월 약 1.4천불로 전기료만 따로 지불하면 나머지 생활요금에 대한 지출이 없다. La Jolla에서 차로 15분거리에 있는 Convoy 지역에는 대형 한인 마트들과 식당들이 있다. 한인 마트는 다양한 종류의 한국 식자재를 한국과 비교해도 크게 비싸지 않게 팔고 있다. 미국은 높은 인건비와 팁 문화 때문에 외식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나, 그 외의 체감 물가는 서울과 비슷하다.

UCSD내에는 'Price Center'라는 곳에 은행, 서점, 마트, 각종 식당 등이 있고, 특히 주로 생활할 단과대학 건물 근처에는 커피와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곳들도 있어 자주 이용하였다. 학교에서 차로 15분 정도면 'Black Beach', 'La Jolla cove', 'Torrey Pines'와 같이 경관이 좋은 해안가를 갈 수 있으므로, 주중 여가를 활용하기 좋다. 학교 옆 'Torrey Pines' 골프장의 경우 PGA가 열리는 세계적인 골프장인데 이용요금이 한국보다 저렴하다. 샌디에이고에는 멕시코 음식점이 많은데 'Taco Stand'라는 멕시코음식 체인점의 타코와 브리또는 합리적인 가격에 맛도 있어 현지 학생들에게도 인기있는 장소이다. 'Caroline's Seaside Café'라는 UCSD의 Scripps Institution에 있는 브런치 집도 경치가 좋고 학생할인도 있어 추천할 만하다.

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캘리포니아는 장기체류자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함으로 현지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다. 샌디에이고에서 자동차가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다. 그러나 교내 주차비가 비싼 편이라 통학시에는 학교 셔틀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UCSD Shuttle Tracker'라는 앱을 활용하면 약 15분 단위로 기숙사와 학교를 오가는 버스와 노선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현지 계좌 개설도 필요하다. 본인의 경우는 학교 내에 'Chase'은행지점이 있어 이 곳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출국 전 '카카오뱅크'에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였는데 장점은 송금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입금되고, 미국계좌에서 떼어가는 수수료도 없다는 점이다.

'Amazon'의 경우 첫 가입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6개월간 'Prime'회원비를 면제해주고 있다. 'Prime'회원인 경우, 배송비가 무료로 물건도 이틀정도 받아 볼 수 있어 인터넷 쇼핑시 활용하면 좋다.

미국은 전공교재가 본래 매우 비싸고, 또 교내서점에서 UCSD edition으로 파는 책도 저렴하지는 않다. 그래서 본인의 경우는 'Amazon'이나 'Chegg'의 도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관련 서비스가 한국에 비해 매우 활성화되어 현지 학생들도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다. 직접경험은 없지만 동료 말에 따르면 학교서점에서 책을 구매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다시 팔 수도 있다고 듣기는 하였다.

에스디사람(www.sdsaram.com)은 현지 교민들이 이용하는 정보교류 사이트인데 이곳에서 중고거래 물품이나 국립공원, 동물원 등 각종 입장권 등이 거래되고 생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유용하다.

3. 수학내용

UCSD는 UC계열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종합 공립대학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라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그 중 School of Global Policy and Strategy(GPS)는 국제관계 및 정책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KDIS의 GMP 과정을 통해 수학한 Master of Advanced Studies in International Affairs(MAS-IA) 학위는 1년만에 석사학위를 득할 수 있는 Executive Master과정 중 하나로서 주로 5년 이상의 현직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과정이다. 총 48학점 (한 과목 당 4학점을) 3쿼터에 나누어서 수강하여야 한다. 학사과정이 빠르게 돌아가는 3개월 쿼터제라는 점과 전체 수강해야 할 과목이 12개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수업 난이도는 KDIS와 비슷한 느낌이다. 다만 수업에 따라서 Home works는 KDIS보다 많게 느껴졌다. 본인은 다음의 표와 같이 수강하였다.

쿼터	수 강 과 목	비 고
Fall Qtr 2018	Microeconomics for Policy and management	
	Quantitative Method 1	
	Politics of Policy Making	Core
	Economics of the Pacific Rim	Core
	Cost Benefit Analysis	
Winter Qtr2019	Market Failure	
	Accounting financing for Policy Making	
	Fiscal and Monetary Policy	
	Politics of South Asia	Regional
Spring Qtr 2019	Public Finance and Taxation	
	Workshop for Policy Issues	Capstone
	Econ Policy in Latin America	Regional

12과목 수강 중 주의할 점은 2과목의 Core Courses, 2과목의 Regional Specialization requirements, 1과목의 Capstone 과정 수강이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과목들은 GPS내 커리큘럼에서 자율적으로 고르면 되는데 본인은 주로 2년 학위 과정들의 core 수업을 위주로 수강하였다. 장점은 core 과정에는 학생 수에 비례하여 조교들이 배정 되는데 이들에게 레포트나 과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TA session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TA들이 자신의 평가점수를 위해서인지 조그만 한 문의에도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단점은 필수과목인 만큼 수업내 다루는 내용이 많고, 중간과 기말고사가 꼭 포함되는 수업들이란 점이다. Regional Specialization requirements를 위해 들었던 두 과목은 케이스 스터디를 위해 조별 보고서 작성과 발표가 위주인 수업이었다. 조원 구성이 좋아 수월하였다. 인상깊은 점은 동료 학생들의 조별모임에서의 태도였다. 조금은 비효율적이라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자주 만나고 자주 고치고 많이 연습하였다. 빠르게 필요한 것만 하려는 한국학생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라 처음에는 당황하였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팀워크 방식에 다른 학습문화를 체험하였다. Capstone 수업은 아쉬움이 남은 과목이었다. 우리 조가 선택한 주제가 중국의 일대일로정책에 관한 것이었는데 4명의 조원들 간 해당 정책에 대한 견해차이가 심해 보고서를 쓰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Capstone수업의 경우는 평소 교류하면서 비슷한 가치관과 관심사를 가진 동료 학생들과 팀이 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지난 년도의 Syllabus는 공개적으로 게재되지 않으나 MAS-IA과정의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면 각 과목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2년차 한국인 학생들과 교류하면 상대적으로 수월한 수업과 어려운 수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4. 수학기간동안 느낀 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크게 느꼈던 점 중 하나는 국제사회의 시선으로 보는 대한민국과 국내에서 본인 스스로 느꼈던 국력의 위상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국제 정치 경제 관련 수업에서는 늘 우리나라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는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로서 항상 언급되는 모범모델로 소개된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을 여학 연습 멘토로 소개받았는데 (UCSD내 International Students& Programs에 신청하면 소개받을 수 있다) KPOP에 빠진 20대 소녀였다. 그녀가 활동하는 KOTX란 동아리는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춤을 따라 추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모임이었다. 한국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정치권의 갈등, 사회문제, 연예계사건 사고 등에 대한 기사들을 보며 이런저런 걱정만을 했던 본인에게는 또 다른 시야로 우리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다.

5.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GMP프로그램으로 가능한 해외 학위과정 중 UCSD의 GPS과정은 들어야하는 과목 수가 많고 방학도 짧아서 선호되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들었다. 본인도 그것을 걱정하였지만 샌디에이고의 좋은 기후와 La Jolla의 높은 수준의 생활여건을 고려한다면 가장 추천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된다.

